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2014년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개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장학재단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14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2013년	구분	2014년
교내 6,000 원 교외 8,000 원	시급	교내 8,000 원 교외 9,500 원
저소득학생수(70%), 운영실적(30%) 등록금인상수준(10%) 내부 장학금 지급률(5%) 우선감면참여율(5%) 전년도 집행률(5%)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예산배정기준	저소득학생수(60%), 운영실적(40%) 등록금인상수준(10%) 내부 장학금 지급률(5%) 우선감면참여율(5%) 전년도 집행률(10%) 대학 자체 대응투자 비율(5%) 교외근로 확대(5%)
4년제(75%), 전문대(25%) 수도권(30%), 비수도권(70%)	예산배정비율	4년제(80%), 전문대(20%) 수도권(30%), 비수도권(70%)
소득 7분위 이하 대상으로 상위순위부터 우선 선발	선발기준	(교내근로) 좌동 (교외근로) 대학자체기준 마련 (소득 7분위 이하 대상) 선발
(교내근로) 장학금의 20% (교외근로) 장학금의 10%	대응투자비율	(교내근로) 근로장학금의 20% (교외근로) 대학 자율
(4년제) 전체 국가근로장학금액 대비 10% 이상 (전문대)전체 국가근로장학금액 대비 25% 이상	교외근로 의무비율	(4년제) 전체 국가근로장학금액 대비 15% 이상 (전문대)전체 국가근로장학금액 대비 25% 이상



I '1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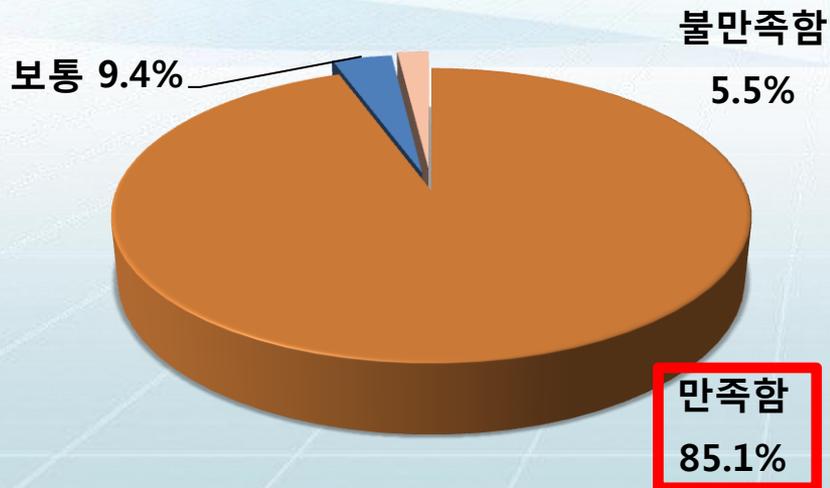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13년 동계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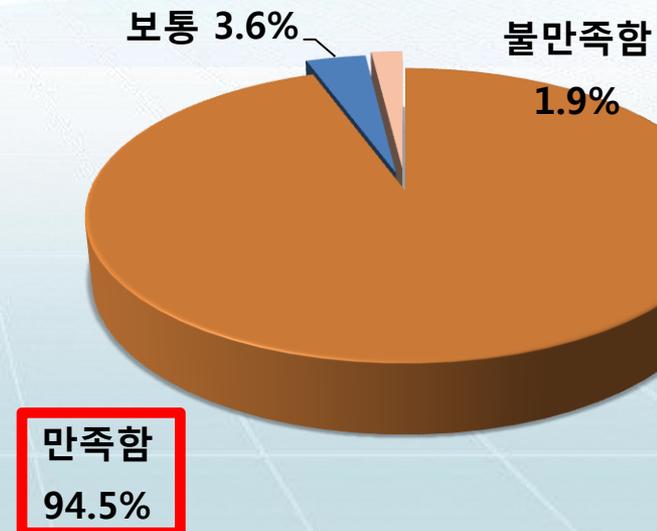
▶ '13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13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근로장학생(5,107명) 및 근로장학기관 담당자(5,0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근로장학생 1,096명, 근로장학기관 담당자 576명 회신

- 근로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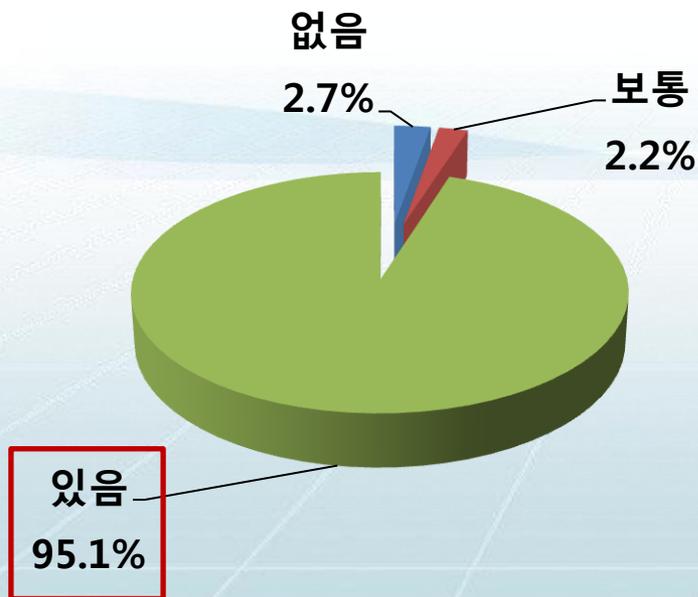
- 근로장학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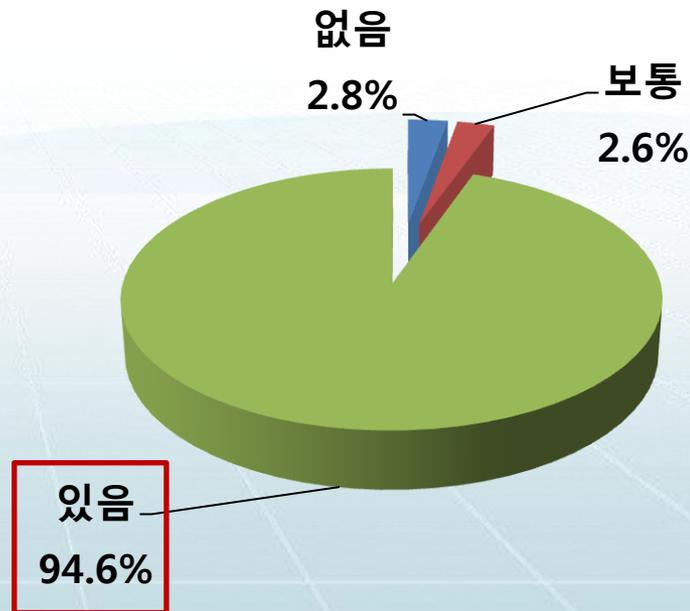
'13년 통계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실적

- '13년 통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근로장학 생 및 근로장학기관의 재참여 의향 조사

- 근로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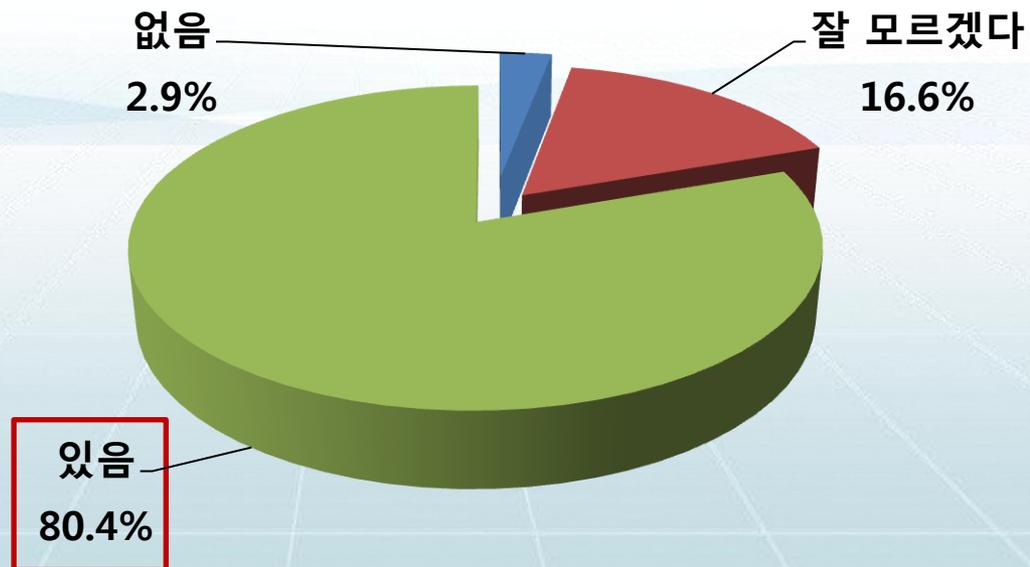


- 근로장학기관



'1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학생 대상 교외근로장학기관 발굴 설문조사 실시

- ▶ '1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학생(135,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18,682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하계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15,027명(80.4%)으로 참여 희망도가 높음



추진실적

< 2013년도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실적 >

- 하계방학(시범운영)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청 등 298개 기관, 680명 근로
 - 동계방학(전국확대) : 시·도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중소기업 등 3,320개 기관, 5,107명 근로실시('14.1월~2월말까지)
- 학생 1인당 방학기간 중 평균 약 **2백만원의(국고비+대응투자) 장학금**을 수혜함.

▶ 학제 및 지역별 참여현황

(단위 : 개)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계
대학교	42	5	23	18	28	1	117
전문대	17	2	10	10	23	2	64
계	59	7	33	28	51	3	181

추진실적

▶ 근로기관 유형별 배정현황

- 총 5,167개 기관의 9,651개 일자리를 발굴하여, 최종 **3,320개 기관(64.3%)**에 **5,107명(52.9%)** 장학생 배정 (단위 : 개, 명)

기관유형	기관 현황			인원 현황			
	참여기관	배정기관	배정비율	수요인원	배정인원	배정비율	기관비율
공공기관	1,135	634	55.9%	2,383	1,217	51.1%	24%
교육기관	2,565	1,694	66.0%	4,073	2,207	54.2%	43%
기업	146	87	59.6%	393	117	29.8%	2%
보건의료시설	111	72	64.9%	256	160	62.5%	3%
비영리단체	116	93	80.2%	222	144	64.9%	3%
사회복지시설	62	33	53.2%	146	51	34.9%	1%
중앙행정기관	83	63	75.9%	219	131	59.8%	3%
지방자치단체	949	644	67.9%	1,959	1,080	55.1%	21%
계	5,167	3,320	64.3%	9,651	5,107	52.9%	100%

추진실적

▶ 장학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국고	대응투자	계
대학교	수도권	1,807	3,381	483	3,864
	비수도권	2,471	4,832	609	5,441
	소계	4,278	8,213	1,092	9,305
전문대	수도권	271	521	57	579
	비수도권	558	1,110	120	1,230
	소계	829	1,631	177	1,809
합계		5,107	9,844	1,270	11,11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문제점] 근로기관 일자리 수요조사 및 대학 최종 선발결과 제출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아, 근로기관 및 대학담당자의 불편 가중 및 추진일정 지연
- ☞ [개선] 근로기관 일자리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완료**
- ☞ [개선] 장학생 신청 및 배정 현황을 시스템으로 조회 기능 개선중(5월 완료)
 - [기존] 대학자료실 확인 → [개선 후] **시스템 확인(관리자포털)**
- ▶ [문제점] 학생 희망교외근로기관 선택 시 3순위까지만 선택 가능하여, 근로기관별 학생 매칭률 저하 및 학생의 폭넓은 수요 반영 어려움
- ☞ [개선] 희망교외근로기관 선택 범위를 기존 3순위에서 **5순위까지 확대하여 학생 매칭율 및 만족도 제고**



II '14년 추진계획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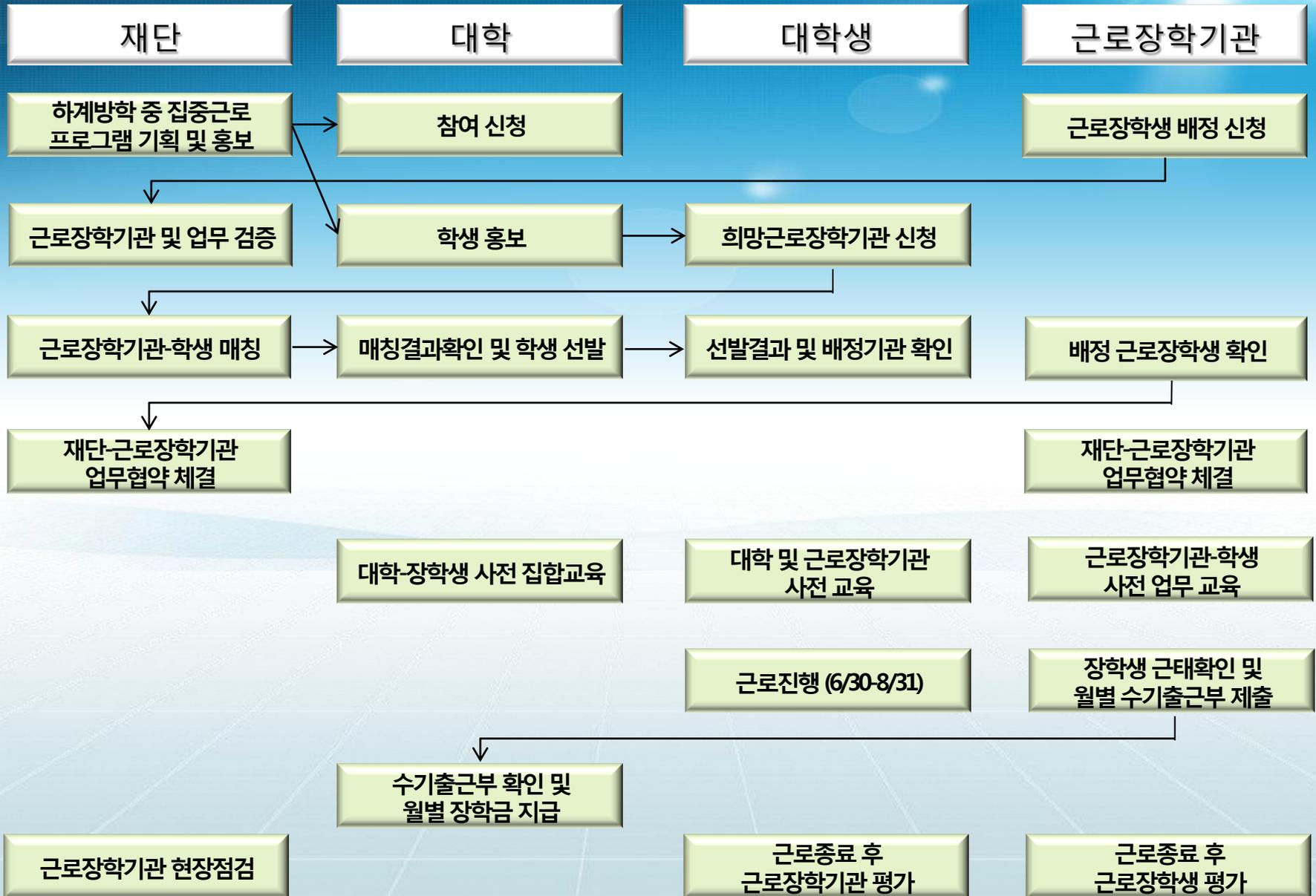
- ▶ 방학기간 동안 전공 연계형 및 공익적 일자리에서 집중근로(전일근로)를 통해 직업 체험 및 취업역량 제고
- ▶ 대학의 교외근로기관 확충 애로점 해소 및 맞춤형 교외근로 활성화

최근동향

2014. 4.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 (경제관계장관회의, 14-13-1)

- (국가근로장학금 전공연계 확대) 재학중 근로경험을 확대하고 졸업이후 취업시에도 근로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제도 내실화
 - 교외 근로장학금 비중을 지속 확대(4년제: '14년 15% → '17년 30%)하고 단순 일자리가 아닌 전공연계형 일자리 근로를 확대
- 전공연계형 일자리 성과를 운영실적에 반영하고 국가근로장학금 예산배정시 감안함으로써 근로장학금 운영의 책무성 확대

추진체계



1

**근로장학기관
장학생 배정신청**

'14. 4. 21(월) ~ 5. 9(금)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우수 중소기업 등 근로장학기관
수요조사 예정

2

대학 참여여부 조사

'14. 5. 2(금) ~ 5. 9(금)

3

**근로장학기관
배정신청 승인 및 검증**

'14. 5. 12(월) ~ 5. 16(금)

※ 근로장학기관, 업무 등 검증 후, 장학생 배정신청 승인

4

장학생 수요조사

'14. 5. 19(월) ~ 5. 23(금)

※ 1순위-5순위까지 장학생의 희망근로기관 선택

5 장학생-기관 매칭

'14. 5. 26(월) ~ 6. 3(화)

※ 소득 분위, 성적, 근로경험, 전공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매칭

6 학생선발

'14. 6. 3(화) ~ 6. 13(금)

※ 장학생-근로장학기관 배정 결과 확인 및 장학생 선발

7 업무협약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14. 6. 16(월) ~ 6. 27(금)

※ 한국장학재단-근로장학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8 배정학생 근로

'14. 6. 30(월) ~ 8. 31(일)

※ 근로 종료 후, 근로장학생과 근로장학기관 상호 평가 실시

Q 현재 진행중인 국가 근로 장학사업과 다른점이 뭔가요?



교외 근로장학기관 확보 → 방학 중 집중 근로 학생 신청 접수 → 근로장학기관 학생 매칭 → 대학관리자포털 상 근로기관 등록 등 재단이 직접 한다는 점, 학생이 세부적인 사항(근로지역, 업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관을 선택 한다는 점이 기존 교외근로와 다릅니다.

Q 근로장학기관과 학생 간 매칭은 재단이 하는 건가요?



학생이 방학 중 집중근로 신청 시 선택한 근로기관을 바탕으로 재단이 직접 매칭합니다. 이후 대학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게 됩니다.

Q

근로장학기관과 업무협약서는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의 근로장학기관은 대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장학생이 배정된 근로장학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Q

근로장학기관의 근로 종료일과 학교의 학사일정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의 학사일정상 근로장학기관의 근로종료일 보다 먼저 근로를 종료해야 할 경우, 대학의 학사일정에 맞춰 운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장학생들을 통해 근로장학기관에 변경된 근로종료일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기관 참여 신청 시, 대학의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으며, 장학생 배정 안내 시 소속대학의 학사일정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졸업 등)이 있는 경우, 학적변동일 전일까지만 근로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학생의 학적변동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방학 중 집중근로시 장학생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요?

 교외근로 장학생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재단에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학 또는 재단으로 연락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Q 학기 중 교외근로와 방학 중 교외근로의 대응투자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장학생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체계 구축

근로장학기관-대학-장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

주요 지원내용

근로장학기관	대학	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연계협력체제 운영▶ 신규 근로지 발굴 (사업 홍보 및 설명회 개최)▶ 근로지 현장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근로지 DB 제공▶ 지역별 대학 협의체 운영▶ 교육지원 및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고충사항, 사고관리▶ 근태점검▶ 부정수급/ 성희롱 예방 등

현장지원 거점 선정

- ▶ 사업 업무량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하여 다수의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5개 거점 선정**(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 업무공간 확보 추진중 (4월~5월)
- ▶ 거점별 현장지원반 운영 및 관리 (6월 개소 예정)

“근로장학사업 덕분에 미래 그렸죠”

장학재단 수기공모전 시상식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광병선)이 지난달 28일 한국장학재단 비전홀에서 국가근로장학생과 업무담당자의 체험수기와 성공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4년 국가근로장학금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교내·외에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높이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올해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은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배가량 높아 대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1, 2회차는 마감됐으며, 다음 3차 신청접수는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진행



국가근로장학금 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서 한국장학재단 김남일 이사(하단 우측에서 5번째)와 수기공모전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된다.

올해 최초로 실시된 국가근로장학금 우수사례 수기공모전에는 총 958개의 수기가 접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7편이 최종 선정됐다.

장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김진웅 학생(충북대)은 “국가근로장학사업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

다”라고 밝혔다.

또 대학담당자 양민영씨(성결대)는 “국가근로장학금 업무를 일로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해가는 학생들을 보며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한국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강섭 기자 ericsong@nocutnews.co.kr

감사합니다.